

目次

東洋古典譯註叢書を 발간하면서

解題

凡例

參考文獻

東萊先生左氏博議序 《東萊先生左氏博議》 서문 / 31

東萊博議 卷1

- 01-01 鄭莊公共叔段 鄭나라 莊公과 共叔段 / 34
 01-02 穎考叔還武姜 穎考叔이 武姜을 돌아오게 하다 / 47
 01-03 周鄭交惡 周나라와 鄭나라가 서로 미워하다 / 53
 01-04 宋穆公立殤公 宋나라 穆公이 殤公을 세우다 / 63
 01-05 衛州吁 衛나라 公子 州吁 / 70
 01-06 臧僖伯諫觀魚 臧僖伯이 觀魚를 諫하다 / 76
 01-07 鄭敗燕 鄭나라가 燕나라를 패배시키다 / 86

東萊博議 卷2

- 02-01 隱公問羽數於衆仲 隱公이 衆仲에게 羽數를 묻다 / 104
 02-02 隱公辭宋使 隱公이 宋나라 使臣의 요청을 사절하다 / 114
 02-03 鄭伯侵陳大獲 鄭伯이 陳나라를 侵攻하여 大獲하다 / 119
 02-04 鄭伯朝威王 鄭伯이 桓王께 朝見하다 / 128
 02-05 陳五父如鄭泣盟敵如忘 陳나라 五父가 鄭나라에 가서 맹약에 참여하여 歃血할 때 마음
 이 탄 곳에 있다 / 136
 02-06 隱公問族於衆仲 隱公이 衆仲에게 族을 묻다 / 160

30 東萊博議 1

東萊博議 卷3

- 03-01 滕薛爭長 滕侯와 薛侯가 禮를 행함에 先後를 다투다 / 167
03-02 穎考叔爭車 穎考叔이 兵車를 차지하려고 다투다 / 171
03-03 齊魯鄭入許 齊·魯·鄭나라가 許나라로 進入하다 / 182
03-04 息侯伐鄭 息侯가 鄭나라를 토벌하다 / 189
03-05 羽父弑隱公 羽父가 隱公을 시해하다 / 197
03-06 臧哀伯諫納郕鼎 臧哀伯이 郕鼎을 宗廟에 들여놓은 것을 간하다 / 207
03-07 晉穆侯命二子名及晉封曲沃 晉 穆侯가 두 아들의 이름을 짓고 晉나라가 <아들 成師를> 曲沃에 봉하다 / 219

東萊博議 卷4

- 04-01 楚侵隨 楚나라가 隨나라를 침공하다 / 231
04-02 魯爲班後鄭 魯나라가 先後의 차례를 정할 때에 鄭나라를 뒤로 정하다 / 241
04-03 鄭太子忽辭昏 鄭나라 太子 忽이 齊나라와의 婚姻을 사절하다 / 250
04-04 威公問名于申繻 桓公이 申繻에게 아들 이름 짓는 것에 대해 묻다 / 263
04-05 王師伐虢 周王의 군대가 虢나라를 치다 / 268
04-06 虞叔伐虞公 虞叔이 虞公을 치다 / 278
04-07 楚屈瑕敗蒲騷 楚나라 屈瑕가 蒲騷에서 郟軍을 패배시키다 / 287

東萊博議 卷5

- 05-01 祭仲立厲公 祭仲이 厲公을 세우다 / 303
05-02 盜殺伋壽 刺客이 伋과 壽를 죽이다 / 314
05-03 魯及齊師戰于奚 魯나라와 齊나라 군대가 奚에서 싸우다 / 327
05-04 威公與文姜如齊 桓公이 文姜과 齊나라에 가다 / 331
05-05 辛伯諫周公黑肩 辛伯이 周公인 黑肩에게 간하다 / 338
05-06 楚武王心蕩 楚 武王의 마음이 動搖하다 / 349
05-07 鄧三甥請殺楚文王 鄧의 驪甥·聘甥·養甥이 楚 文王을 죽일 것을 청하다 / 359
05-08 魯莊公圍郕 魯 莊公이 郕나라를 포위하다 / 369

東萊先生左氏博議序 《東萊先生左氏博議》 서문

左氏博議者는 爲諸生課試之作¹⁾也라 始予屏處東陽之武川에 仰林俯壑²⁾이라 出戶而望에 目盡³⁾無來人이러니 居半歲에 里中稍稍披蓬藿⁴⁾從予游하나라 談餘語隙에 波及課試之文일새 予思有以佐其筆端⁵⁾하야 乃取左氏하야 書理亂得失之蹟하고 疏其說於下하니 旬儲月積에 浸就編帙하나라 諸生歲時休沐⁶⁾에 必抄寘楮中일새 解其歸裝이면 無虛者하나라 竝舍婣黨⁷⁾復從而廣之하야 曼衍四出⁸⁾하니 漫不可收하나라

- 1) [역주] 爲諸生科試之作 : 학생들이 科學試驗에 答案을 作成하는 요령을 익히게 하기 위해 지은 것이라는 말이다.
- 2) [역주] 仰林俯壑 : 고개를 들고 위를 바라보면 樹林만 보이고 고개를 숙여 아래를 보면 溪谷만 보인다는 말로, 주위가 모두 산림과 계곡뿐이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는 산골이라는 뜻이다.
- 3) [역주] 目盡 : 視力을 다 사용하여 멀리 바라봄이다.
- 4) [역주] 披蓬藿 : 쭉과 명아주를 헤친다는 말로 곧 풀을 헤치고 찾아옴이다.
- 5) [역주] 筆端 : 詩文을 쓰는 붓인데, 여기서는 글을 쓰는 技藝를 이룬 말로 쓰였다.
- 6) [역주] 休沐 : 休暇이다.
- 7) [역주] 竝舍婣黨 : 이웃에 사는 姻戚을 이른다.
- 8) [역주] 曼衍四出 : 傳播하여 사방으로 流出됨이다.

《左氏博議》는 학생들의 科試를 위해 지은 것이다. 처음 내가 東陽의 武川에 隱居할 때는, 위로는 樹林만 보이고 아래로는 溪谷만 보일 뿐, 방문을 나와 아득히 바라보아도 오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었다. 그러다가 반년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차츰 풀을 헤치고 찾아와서 나와 교류하였다.

談話하는 사이에 科試文을 言及하기에 나는 그들의 筆端을 돕기로 생각하여, 《春秋左氏傳》에서 治亂得失의 史蹟을 뽑아 기록하고서 그 밑에 論說을 붙이기 시작하

었는데, 날이 쌓이고 달이 쌓이자 점차 여러 권의 冊이 되었다.

諸生이 名節 때나 休暇를 받아 돌아갈 때면 반드시 이 책을 베껴 짐 속에 넣어 가지고 갔기 때문에, 돌아가는 자들의 行裝을 열어보면 이 책이 없는 자가 없었다. 또한 이웃에 사는 姻戚들이 이 책을 널리 傳播하여 책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니 너무 많이 전파되어 회수할 수가 없었다.

客或咎予之易其言^{이어늘}予徐應之曰 子亦聞鄉隣之求醫者乎^저 深痼隱疾은 人所羞道而諱稱者^{어늘} 揭之大塗^{하야} 惟恐行者不閱^{하고} 閱者不播^{라하니} 彼豈視然忘恥哉^{리오} 德欲蓄而病欲章也^{니라} 予離群而素居가 有年矣^라 過而莫予輔也^{하고} 跌而莫予挽也^{하며} 心術之差見聞之誤而莫予正也^{러니} 幸因是書而胸中所存所操所識所習의 毫忽髮繆를 隨筆呈露^{하야} 舉無留藏^{하고} 又幸而假課試以爲媒^{하고} 借逢掖以爲郵^{하야} 徧致於諸公長者之側^{하니} 或矜而鑄^{하고} 或慍而謫^{하며} 或侮而譙^{리라} 一語聞則一病瘳^니 其獲不(既)(豈)¹⁾ 豐矣乎^아 傳愈博病愈白益愈衆^{하리니} 於予也奚損^{이리오} 遂次第其語^{하야} 以諗觀者^{하노라}

1) [역주] (既)[豈]: 저본에 '既'로 되어 있으나, 문맥을 살펴 '豈'로 바로잡았다.

어떤 이가 내가 말을 쉽게 한다고 나무라기에 내가 천천히 대답하였다.

“그대 또한 병을 앓는 이웃 사람이 醫師를 찾는 일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깊이 숨긴 고질병은 사람들이 말하기 부끄러워 숨기는 것인데, <이웃의 病者는> 그 병을 大路가에 揭示하고서 지나는 자들이 보지 않을까, 본 자가 널리 전파하지 않을까만을 걱정한다고 하니, 저 사람이 어찌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을 잊어서이겠습니까? 德은 內面에 蓄積하려 하고 病은 外部에 드러내려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는 무리를 떠나 외로이 생활한 지가 여러 해 되다 보니, 허물이 있어도 나를 보완해주는 이가 없고, 넘어져도 나를 잡아주는 이가 없으며, 用心의 잘못과 見聞의 誤謬를 바로잡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책을 통해 마음속에 보존한 생각, 지키고 있는 意志, 알고 있는 知識, 익힌 일들을 일정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이 서술하여 털끝만 한 잘못까지 모두 드러내고 숨기지 않았고, 또 다행히 科試를 媒婆로 삼고 逢掖(선비)을 郵遞夫로 삼아 여러 長者들 곁에 두루 이 책을 전하

게 되었으니, 어떤 이는 〈이 책을 보고서〉 가엾게 여겨 가르쳐줄 것이고, 어떤 이는 화를 내어 나무랄 것이고, 어떤 이는 업신여겨 꾸짖을 것입니다.

한 마디 말을 들으면 한 가지 병을 고칠 수 있으니 얻는 것이 어찌 많지 않겠습니까? 더욱 널리 전해질수록 병이 더욱 드러나고 이익이 더욱 많아질 것이니 나에게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서 드디어 이 말을 차례로 서술하여 이 책을 보는 이들에게 곱하노라.

凡春秋經旨는 槩不敢僭論하고 而枝辭贅喻는 則舉子所以資課試者也¹⁾ 세니라 東萊 呂祖謙伯恭은 序하노라

1) [역주] 春秋經旨……則舉子所以資課試者也 : 《春秋》 經文은 孔子께서 지으신 것이라 감히 논할 수 없어 論題로 삼아 논술하지 않았고, 左氏傳文의 枝葉的인 말과 군더더기 말만을 뽑아 논제로 삼아 是非得失을 논술한 것은 科擧試驗을 준비하는 자들이 答案을 작성하는 요령을 익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란 말이다.

대체로 《春秋》 經文의 뜻은 대략이라도 감히 참람하게 논하지 않았고, 〈傳文의〉 지엽적인 말과 군더더기 말만을 〈뽑아 논술한 것은〉 擧子들의 科試에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東萊 呂祖謙 伯恭은 서문을 쓰다.